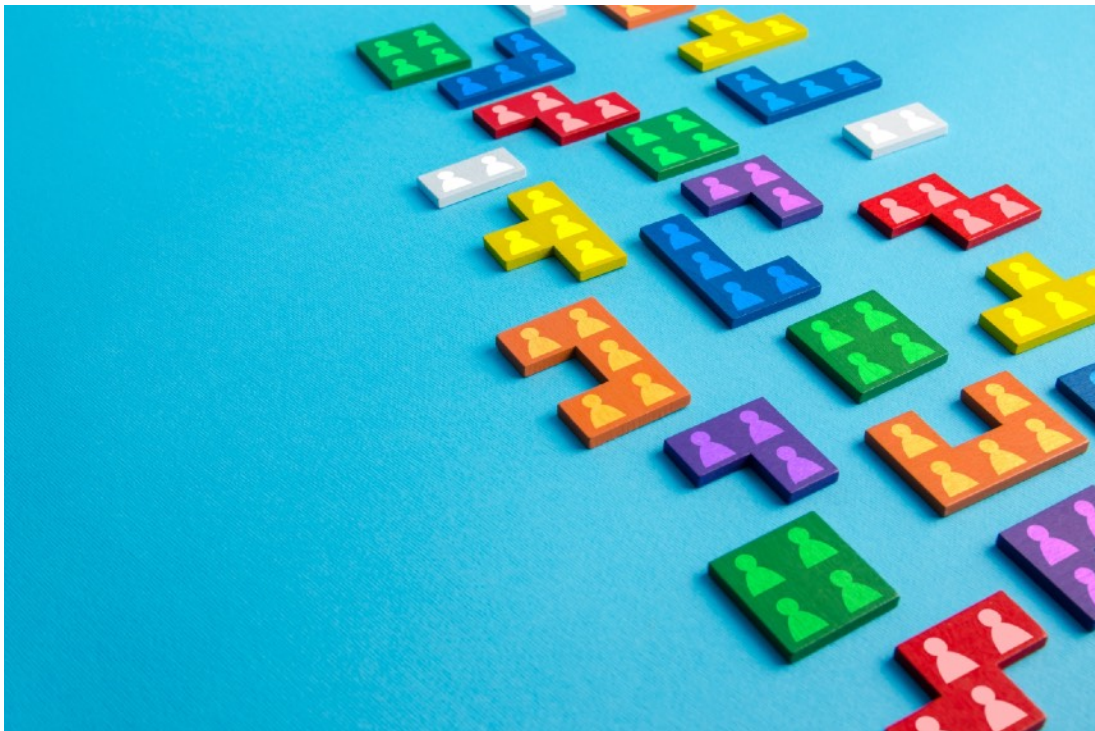


## 주요 내용

1. [코로나19 이후 농어촌교회 현황]  
농어촌교회, 60대 이상 교인 89%!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1) 한국인의 계층 인식
  - 2) 한국인의 기후변화 인식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농어촌교회, 60대 이상 교인 89%!!

지난해 말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15.7%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오는 2025년이면 고령인구 비율 20.6%로 초고령사회로 넘어갈 것이라 예측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군·구는 2020년 기준 총 109곳으로 전국 시·군·구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예정통합 영남지역 15개 노회에 대한 ‘농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자료가 발표됐는데, 농어촌교회 교인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89%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정부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농어촌교회의 고령화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고령화, 지방소멸, 디지털시대로의 급속한 변화 속에 농어촌교회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 판단하여, 비록 한 교단의 영남지역 농어촌교회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지만, 현 농어촌교회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이 조사 결과와 작년 예정통합교단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추적조사 결과 중 읍면지역 데이터를 추출하여 이번 141호에 정리해 보았다.

이 보고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어촌교회의 선교와 정책 자료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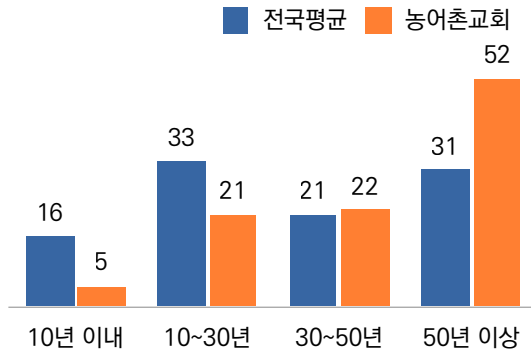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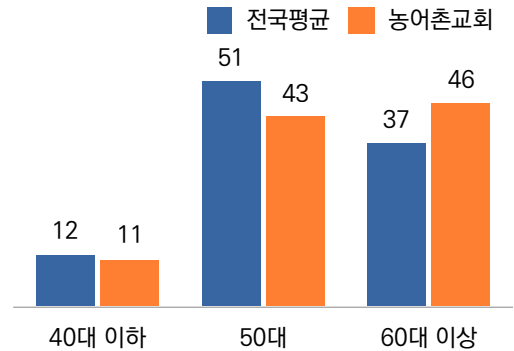
## 농어촌교회, 절반이 50년 이상 된 교회!

- ▶ 농어촌교회의 절반(52%)이 설립된 지 50년 이상 되었으며, '10년 이내'라는 응답은 5%에 그쳤다. 대도시와 비교하면 읍면지역일수록 오랜 역사를 지닌 교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였다.
- ▶ 농어촌교회 목회자 연령은 절반 가까이(46%)가 60대 이상이었으며, 40대 연령층은 11%에 지나지 않았다. 전국평균이 60대 이상 37%인 점을 보면, 농어촌교회 목회자가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시무교회 설립 연수 (전국평균\* vs 농어촌교회\*, %)



[그림] 목회자 연령 (전국평균\* vs 농어촌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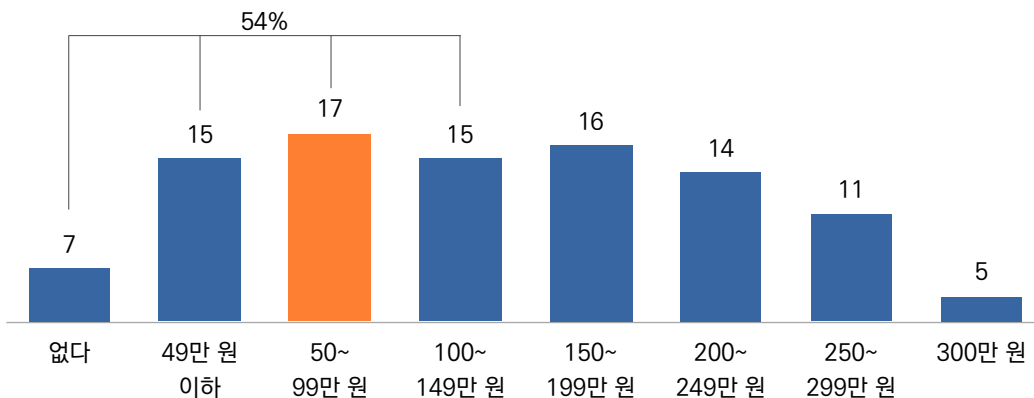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예장총회(통합),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목회자 대상)', 2021.08.13. (총회소속 담임목사 891명, 2021.06.18.~06.30, 모바일 조사)  
 \*\*자료 출처: 예장통합총회 동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동부지역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2022.03.10. (예장통합총회 영남지역 15개 노회의 농산어촌 교회 848개 중 221개 교회 목회자, 모바일조사, 2021.04~2022.01)

### ◎ 농어촌 목회자 절반 이상(54%), 월 사례비 150만 원 미만!

- ▶ 농어촌 목회자의 월 사례비는 절반 이상(54%)이 15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비가 아예 없거나 99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농어촌 목회자의 39%나 되어 농어촌 목회자들의 열악한 경제적 형편을 보여 주고 있다.
- ▶ 반면 월 250만 원 이상 목회자는 16%에 불과해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림] 농어촌 목회자의 월 사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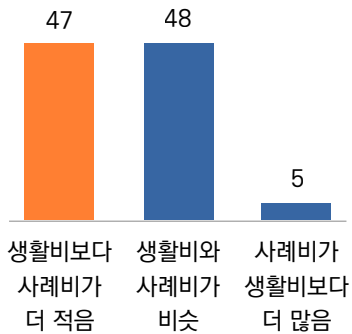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예장통합총회 동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동부지역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2022.03.10. (예장통합총회 영남지역 15개 노회의 농산어촌 교회 848개 중 221개 교회 목회자, 모바일조사, 2021.04~202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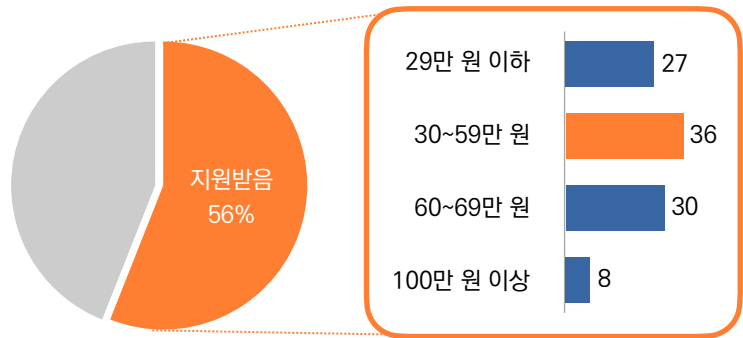
## ◎ 목회자 2명 중 1명꼴(47%) 생활비보다 적은 사례비 받고 있어!

- ▶ 목회자들의 생활비와 사례비를 교차 분석했을 때 ‘생활비보다 사례비가 적은 경우’는 전체의 47%를 차지했고, 생활비와 사례비가 비슷한 수준인 경우는 48%였다. 반면 사례비가 생활비보다 많다는 응답자는 5%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생활비에 비해 사례비가 더 적은 비율이 높았다.
- ▶ 외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56%였는데, 그 금액을 보면 30~59만 원 구간이 가장 많았고, 대체로 100만 원 미만(92%)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농어촌 목회자 생활비와 사례비 비교 (%)



[그림] 외부로부터 생활비 지원여부 및 금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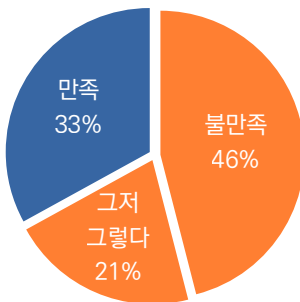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예장통합총회 동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동부지역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2022.03.10. (예장통합총회 영남지역 15개 노회의 농산어촌 교회 848개 중 221개 교회 목회자, 모바일조사, 2021.04~2022.01)

## ◎ 교회 재정만족도, '그저 그렇거나 불만족' 67%!

- ▶ 그렇다면 농어촌 목회의 재정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조사 결과 '불만족' 46%, '만족' 33%, '그저 그렇다' 21%으로 나타나, 불만족도가 만족도보다 약간 높았다.

[그림] 농어촌 목회자의 교회 재정만족도



\*자료 출처: 예장통합총회 동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동부지역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2022.03.10. (예장통합총회 영남지역 15개 노회의 농산어촌 교회 848개 중 221개 교회 목회자, 모바일조사, 2021.04~202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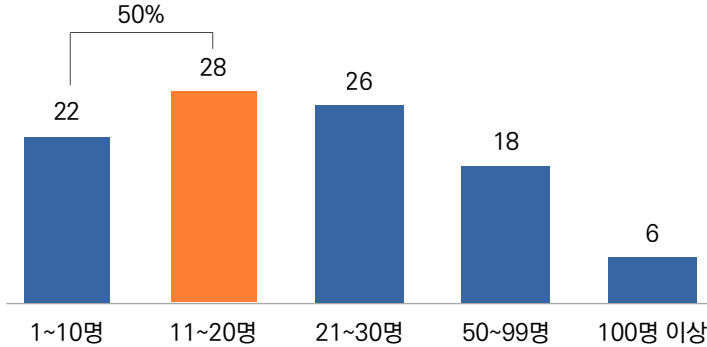
\*\*만족(매우 만족+만족),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 비율임.

# 02

## 농어촌교회 절반은, 주일예배 평균 출석(성인 기준) 20명 이하

- ▶ 주일예배 평균 출석 인원수(성인 기준)를 보면 ‘20명 이하’인 교회가 절반(50%)이었고, ‘21~30명’ 26%, ‘50~99명’ 18%로 100명 미만이 대다수(94%)였다. 100명 이상이란 응답은 6%에 그쳤다.

[그림] 주일예배 출석교인 수 (성인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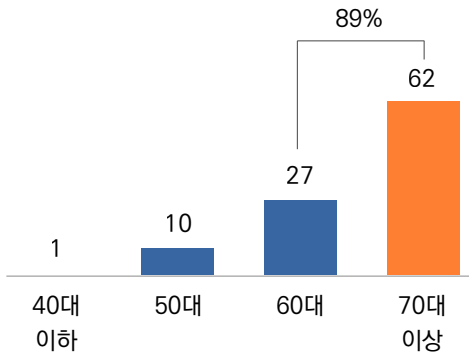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예장통합총회 동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동부지역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2022.03.10. (예장통합총회 영남지역 15개 노회의 농산어촌 교회 848개 중 221개 교회 목회자, 모바일조사, 2021.04~202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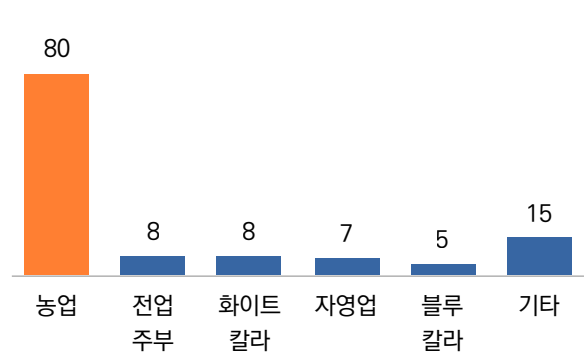
### ◎ 농어촌교회 60대 이상 교인 89%!

- ▶ 농어촌교회 교인들의 연령층은 70대 이상이 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60대(27%)이다. 40대 이하는 1%였는데, 이는 젊은이들이 농어촌교회에 없음을 실감하는 데이터이다. 전체적으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농어촌교회 교인 10명 중 9명(89%)으로 농어촌교회의 고령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 농어촌교회 교인들의 주 직업군은 80%가 ‘농업’이라고 응답했는데, 농어촌교회 교인 5명 중 4명(80%)은 농업에 종사하는 셈이다.

[그림] 교인들의 연령분포 (%)



[그림] 교인들의 주 직업군 (중복응답,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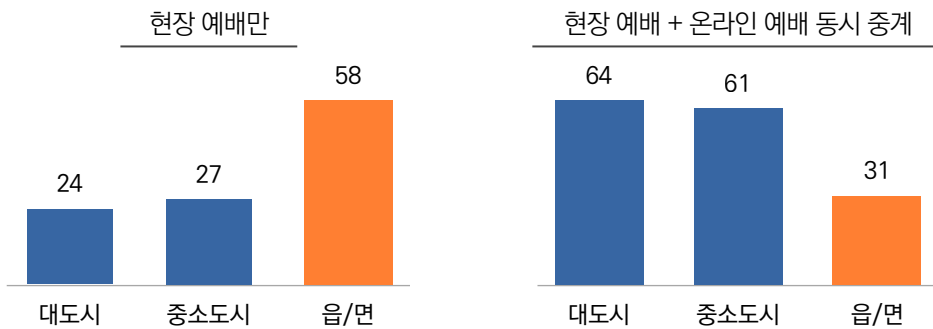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예장통합총회 동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동부지역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2022.03.10. (예장통합총회 영남지역 15개 노회의 농산어촌 교회 848개 중 221개 교회 목회자, 모바일조사, 2021.04~2022.01)

\*\*본 조사에서는 농어촌 목회자 221명에게 교인의 주 직업 2개까지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 목회자 221명 기준으로 중복응답으로 다시 계산하여 정리하였음.

## ◎ 코로나19 기간, 농어촌교회 절반 이상(58%)은 ‘주일 현장 예배만’ 드려!

- ▶ 코로나 기간 중 주일예배 운영 형태에 대해 읍면지역의 경우 58%는 ‘현장 예배만 드리고 온라인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현장 예배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한다’는 응답은 31%였다.
- ▶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현장 예배만’ 드리는 비율이 각각 24%, 27%인 것과 비교하면 읍면지역의 현장 예배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반면 현장예배와 함께 온라인예배를 동시 중계하는 경우 읍면지역이 31%로 대도시(64%)와 중소도시(61%)의 절반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현 주일예배 운영 형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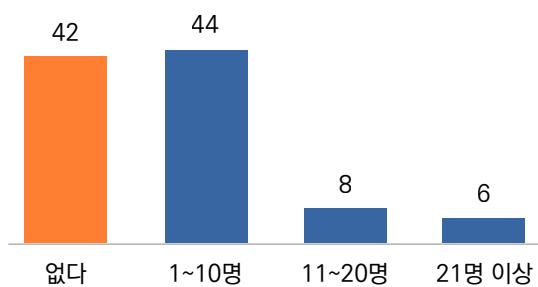
\*자료 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목회자 대상), 2021.08.1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소속 담임목사, 총 891명, 2021.06.18.~06.30, 모바일 조사)

## 03

### 농어촌교회 교회학교 현황, ‘주일예배 출석 학생 없다’ 42%에 달해!

- ▶ 농어촌교회 교회학교 출석 현황을 보면 아예 ‘없다’는 경우가 42%나 되었고, 그것도 ‘10명 이하’경우가 44%로 나타났다. 고령화, 농어촌인구 감소, 저출산 등의 요인으로 농어촌교회 교회학교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교회학교 주일예배 참석 학생 수 (유치부~중고등부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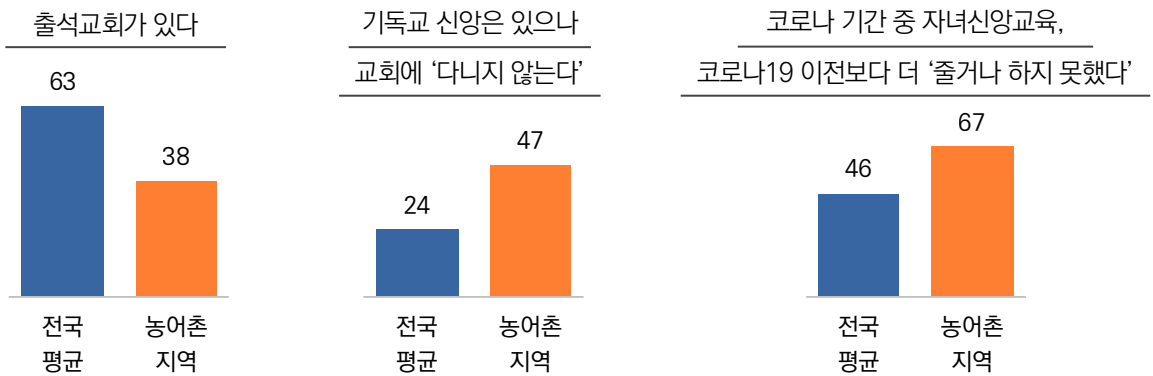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예장통합총회 동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동부지역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2022.03.10. (예장통합총회 영남지역 15개 노회의 농산어촌 교회 848개 중 221개 교회 목회자, 모바일조사, 2021.04~2022.01)

## ◎ 농어촌 지역 개신교인, 자녀가 ‘기독교 신앙 있지만 교회 안 나가’ 47%!

- ▶ 농어촌 지역 개신교인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교회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출석교회가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38%로 전국 평균(63%)을 훨씬 밑돌았다.
- ▶ 또, ‘기독교 신앙은 있으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률은 47%로 전국 평균(24%)보다 두 배나 높아 농어촌지역의 기독교 가정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 코로나19 기간 중 자녀 신앙교육의 경우 농어촌지역에서는 67%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좋거나’, ‘하지 못했다’라고 답해 이 또한 전국 평균(46%)보다 21% 높게 답변됐다.
- ▶ 결론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아이들이 기독교 신앙이 있더라도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교회에 나가도록 권면하거나, 자녀 신앙교육에 힘쓰는 모습이 부족함을 엿볼 수 있다.

[그림] 농어촌지역 기독교 가정의 자녀 현황 (유치원생~고등학생 자녀 있는 개신교인 부모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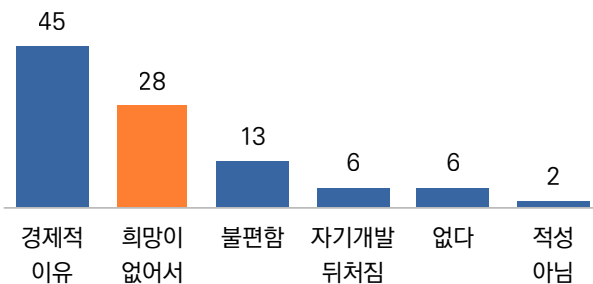
\*자료 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개신교인 대상), 2021.07.20.(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총 1,000명, 2021.06.17.-06.28, 온라인조사)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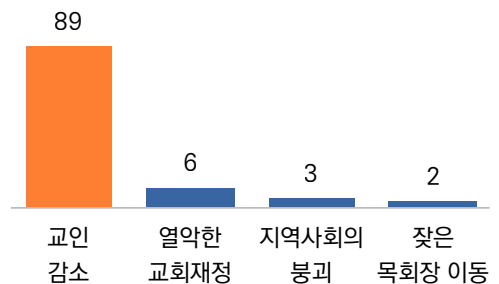
### 농어촌 목회 힘든 이유, ‘경제적 이유’ 45%, ‘희망이 없어서’ 28%!

- ▶ 농어촌 목회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는 앞선 사례비 조사 결과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경제적 이유’가 45%로 가장 컸고, ‘희망이 없어서’가 28%로 그 뒤를 이었다.
- ▶ 10명 중 3명 정도의 농어촌교회 목회자가 목회에 대한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었다.
- ▶ 이와 더불어 ‘현재 교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인감소’ 89%, ‘열악한 교회재정 6%’, ‘지역사회의 붕괴 3%’ 순으로 교인감소가 압도적으로 높아,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케하고 있다.

[그림] 농어촌 목회가 힘든 이유 (중복응답, %)



[그림] 농어촌교회가 당면한 문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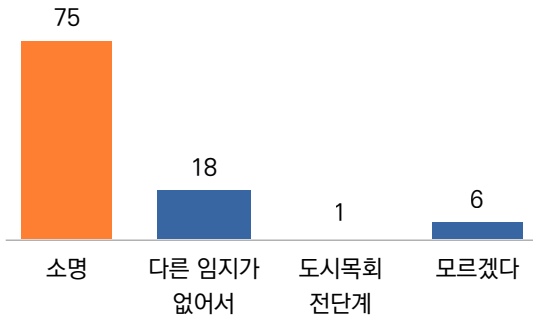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예장통합총회 동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동부지역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2022.03.10. (예장통합총회 영남지역 15개 노회의 농산어촌 교회 848개 중 221개 교회 목회자, 모바일조사, 2021.04-202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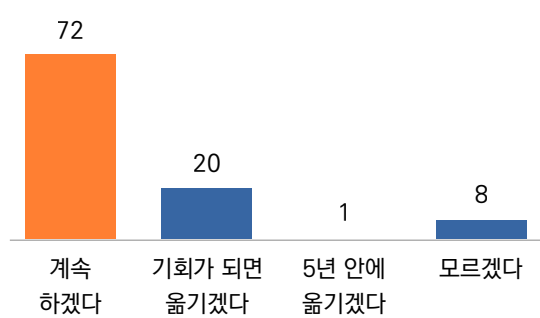
## ◎ 농촌 목회자 4명 중 3명, '소명' 때문에 '앞으로도 목회 계속하겠다'!

- ▶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명'이라고 답한 목회자가 75%를 차지하였고, '다른 임지가 없어서' 18%로 나타났다.
- ▶ 앞으로도 현재의 농어촌 목회를 계속 하겠다는 응답은 72%로 나타났으며, 10명 중 3명은 다른 임지로 옮기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림]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이유 (%)



[그림] 농어촌목회 지속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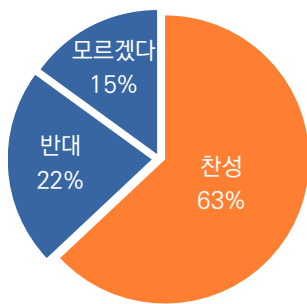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예장통합총회 동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동부지역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2022.03.10. (예장통합총회 영남지역 15개 노회의 농산어촌 교회 848개 중 221개 교회 목회자, 모바일조사, 2021.04~2022.01)

# 05

## 목회자의 이중직... 농어촌 목회자 63%가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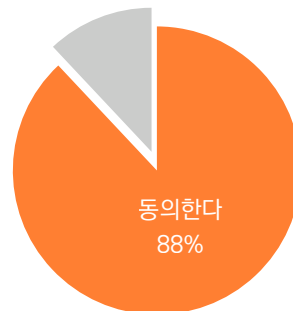
- ▶ 목회자가 목회 이외의 다른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 즉,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농어촌 목회자의 63%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22%로 나타나 찬성 비율이 반대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이와 관련 '한국교회가 이중직 목회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국 목회자의 88%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농어촌 목회자의 이중직 찬반 의견\*



[그림] 전국 목회자의 이중직 인식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 전체)\*\*

'한국교회는 이중직 목회자를 지원해야 한다'



\*자료 출처: 예장통합총회 동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동부지역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2022.03.10. (예장통합총회 영남지역 15개 노회의 농산어촌 교회 848개 중 221개 교회 목회자, 모바일조사, 2021.04~2022.01)

\*\*자료 출처: 예장총회(통합),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목회자 대상)', 2021.08.13.(총회소속 담임목사 891명, 2021.06.18.-06.30, 모바일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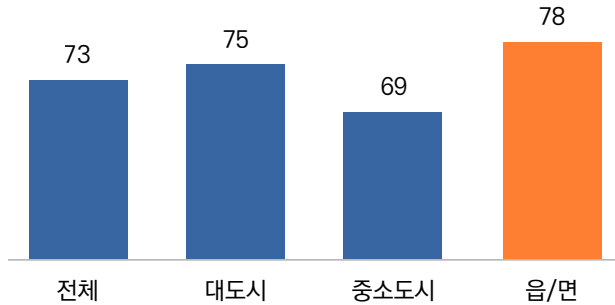
\*\*\*4점 척도 질문임(적극+약간찬성 적극+약간반대, 매우+약간동의)



## ◎ 농어촌 지역 개신교인도 “한국교회가 이종직 목회자 지원해야” 78%!

- ▶ ‘한국교회가 이종직 목회자를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농어촌지역 개신교인의 78%가 ‘지원해야 한다’라고 답해 전국 평균(73%) 대비 5%p 높게 나타났다.
- ▶ 농어촌 목회자들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성도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여서 눈여겨 볼만하다.

[그림] ‘한국교회는 이종직 목회자를 지원해야 한다’  
 (‘동의한다’ 비율, 전국 개신교인 전체, 거주 지역 크기별, %)



\*자료 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개신교인 대상), 2021.07.20.(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총 1,000명, 2021.06.17.~06.28, 온라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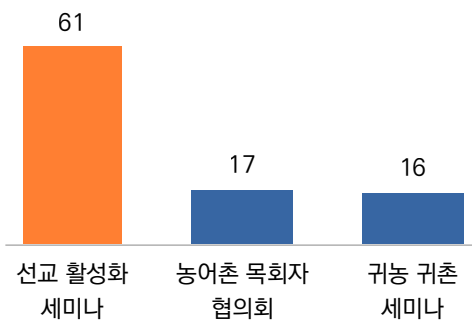
\*\* 동의함(매우+약간) 비율임.

## 06

## 관심 있는 농어촌 선교 사업을 꼽자면, 5명 중 3명(61%)은 ‘선교 활성화 세미나’!

- ▶ 농어촌 목회자들에게 ‘관심있는 농어촌 선교 사업이나 활동’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목회자 5명 중 3명(61%)은 ‘선교 활성화 세미나’를 꼽았다. 다음으로 ‘농어촌 목회자협의회’ 17%와 ‘귀농 귀촌 세미나’ 16%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관심 있는 농어촌 선교 사업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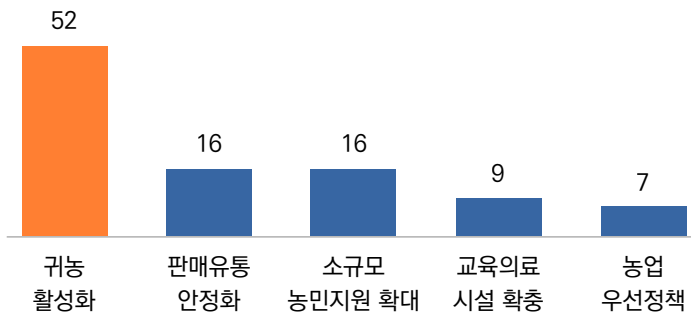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예장통합총회 동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동부지역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2022.03.10. (예장통합총회 영남지역 15개 노회의 농산어촌 교회 848개 중 221개 교회 목회자, 모바일조사, 2021.04~2022.01)

## ◎ 농어촌 목회자, 정부에 바란다, 귀농 활성화(1위), 판매유통 안정화(2위) 순!

- ▶ 농어촌 지역 목회자들이 정부 농업 정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귀농 활성화’ 52%, ‘판매유통 안정화’ 16%, ‘소규모 농민지원 확대’ 16%, ‘교육의료 시설 확충’ 9% 등의 순이었다.
- ▶ 농어촌 지역 목회자들은 줄어들고 있는 농어촌 인구 문제와 농어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귀농활성화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 정부에 바라는 점 (%)



\*자료 출처: 예장통합총회 동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동부지역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2022.03.10. (예장통합총회 영남지역 15개 노회의 농산어촌 교회 848개 중 221개 교회 목회자, 모바일조사, 2021.04~2022.01)

농어촌교회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농어촌교회의 50%는 주일예배에 20명 이하가 출석할 정도로 소규모화 되어 있다. 또 교회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는데 출석교인의 89%가 60세 이상이고, 주일예배 참석 학생(유치부~고등부)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42%나 될 정도이다. 얼마 안되는 학생들도 성장하면 도시로 빠져 나갈텐데 그럴 경우 교회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다. 2020년 우리나라 60세 국민의 기대 여명(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은 25.9년이므로 현재 60세가 86세가 되는 26년 후에는 교인이 한 명도 없어서 문을 닫는 교회가 속출할 것이다.

농어촌교회의 위기의 원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수도권 인구집중화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어서 30년 후인 2050년에는 4,736만 명으로 8.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sup>1)</sup> 그리고 2050년 중위 연령이 58세로, 인구의 절반이 58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과 함께 나타난다. 2020년에는 전국 인구 가운데 수도권 인구가 50%를 차지했는데 2047년에는 52%, 2067년에는 53%로 늘어나서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다른 연령대보다 청년층에서 더 높았다. 2047년에는 전 연령대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52%로 예상되는데 청년층은 그보다 3%p 높은 55%, 2117년에는 전체 평균이 53%, 청년층이 56%로 예상되고 있을 정도로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교회의 위기는 교회 재정 위기와 직결된다. 농어촌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46%가 교회 재정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해서 교회 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응답도 33%였는데, 이들은 교회 재정이 여유있어서 만족한다기 보다는 자족하는 마음인 경우, 교회의 특별한 사업이나 행사가 없어서 소요 예산도 필요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닐 것이다. 목회자 사례비도 매우 낮아서 월 150만 원 이하 사례비를 받는 경우가 54%나 된다. 우리나

라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인데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휴 8시간 포함-기준)이므로 농어촌 교회 목회자는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사례비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왜 이들은 험한 농어촌교회 목회를 버리지 못하고 있을까? '소명' 때문이다. 이들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목회를 소명으로 여기고(75%) 농어촌 목회를 계속하겠다(72%)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 농어촌 목회를 단순한 직업, 혹은 생활의 터전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 들이고 있기 때문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심정으로 농어촌 목회에 임하고 있다.

농어촌 목회자들은 부족한 사례비, 교회 운영비를 메꾸기 위해 도시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 교회가 절반이 조금 넘는 56%나 되었다. 지원 금액을 보면 30~59만원이 36%, 60~69만원이 30%로 30~69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는 교회가 3교회 가운데 2교회나 되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후원은 목회자의 개인 능력에 의존한다. 인맥이 넓은 목회자와 그렇지 못한 목회자 사이에 후원금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 우리는 '공교회'임을 믿는다. 농어촌 교회의 문제가 농어촌 지역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도시 교회는 농어촌 교회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농어촌교회 지원을 개교회에 맡겨 놓지 말고, 지방회, 노회, 총회가 나서서 지원받을 교회와 지원할 교회를 교회 규모와 형편에 따라 서로 매칭해 주는 역할이 요구된다. 그래서 더 많은 농어촌 교회가 고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조정해야 하고, 이미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교단에서는 이 제도를 더 강화해서 농어촌 교회 목회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 전전공공, 동분서주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128호(2022. 1.18)

1.[한국인의 계층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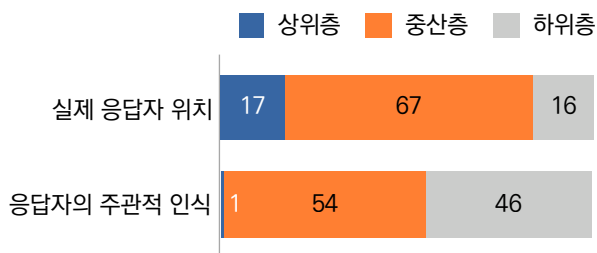
2.[한국인의 기후변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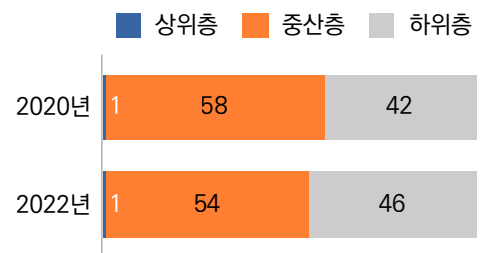
## 우리 국민의 46%, “나는 하위층이다!”

- ▶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중산층의 삶과 금융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 중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54%, ‘하위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46%였다. 반면 응답자 중 자신을 상위층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1%에 그쳤다.
- ▶ 중산층의 기준을 중위소득의 75~200% 범위에 속하는 구성원으로 정의하여 실제 응답자들의 소득수준을 물어본 후, 그 결과를 정리하면 상위층 17%, 중산층 67%, 하위층 16%로 나타났다. 실제 구성비와 국민들의 주관적인 인식과 비교할 때 상위층과 중산층에서 자신의 경제적 위치를 실제보다 훨씬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 ▶ 2020년과 2022년의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는 사람이 줄고(4%p), 하위층으로 보는 비율은 더 증가하였다(4%p). 그만큼 주식, 암호화폐 등 자산 폭등기에 혜택을 받지 못한 박탈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국민들의 계층 인식  
(실제 응답자 위치 vs 주관적 인식, %)



[그림] 국민들의 주관적 계층 인식  
(2021년 vs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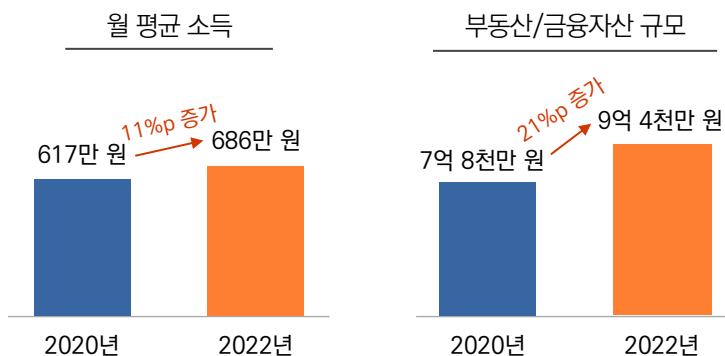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22 중산층의 삶과 금융실태조사', 2022.04.06. (만 30~59세 성인남녀 1140명, 온라인조사, 2022.02.22.~03.02)  
 \*\*보도기사 : 한국경제신문, '부동산·주식 폭등에 소외감...30대 절반 이상이 "나는 하위층"', 2022. 04.06(<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40686851>)  
 Note : 중산층의 기준은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할 때 중위소득의 75~200% 범위에 속하는 구성원으로 정의함.

### ◎ 부동산과 금융자산, ‘최소 9억 4천만 원’은 있어야 중산층!

- ▶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월평균 소득은 686만 원으로 2년 전 조사 대비 11%p 높았다.
- ▶ 또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규모는 가구 기준 최소한 9억 4천만 원을 중산층의 조건으로 꼽았다. 주목할 점은 중산층 조건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규모가 2년 전(7억 8천만 원) 대비 무려 21%p나 증가한 점이다. 그 사이 크게 오른 부동산 가격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림]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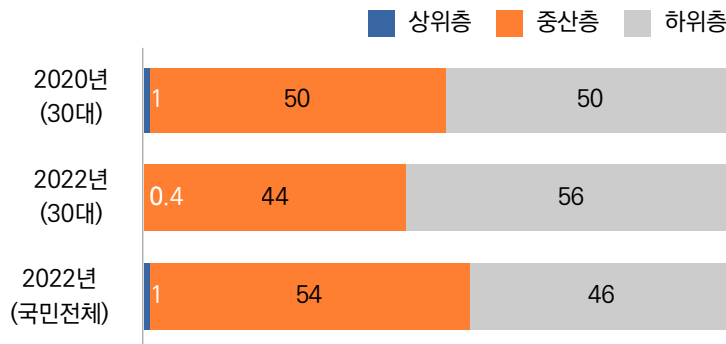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22 중산층의 삶과 금융실태조사', 2022.04.06. (만 30~59세 성인남녀 1140명, 온라인조사, 2022.02.22.~0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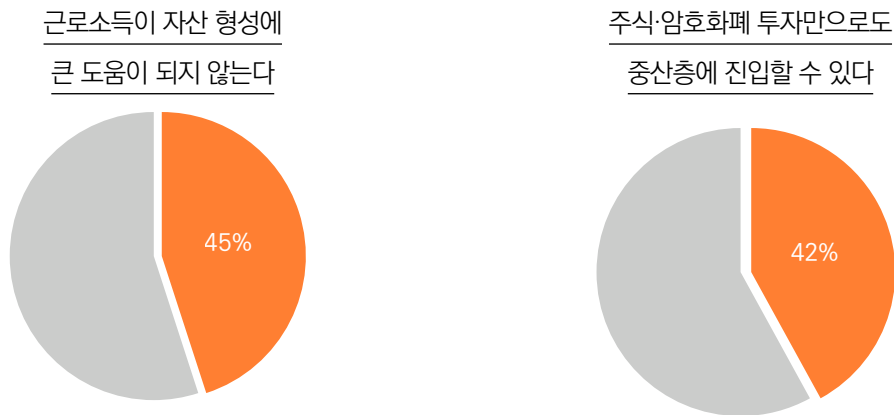
## ◎ 30대층, 국민 전체보다 자신을 하위층이라 인식하는 비율 훨씬 높아!

- ▶ 30대 응답자들의 경우 자신이 '하위층'이라 인식하는 비중이 56%로 2020년 대비 6%p나 증가했다. 반면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30대는 44%로 6%p 낮아진 수치를 보였다. 국민 전체보다 30대가 특히 자신을 하위층이라 보는 비율이 훨씬 높아, 이들의 현실적인 좌절감을 보여주고 있다.
- ▶ 30대들의 근로소득 및 투자에 대한 인식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이들이 '근로소득 증가율이 투자소득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인지하여, 30대 응답자 절반 가까이(45%)는 근로소득이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주식 및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 5명 중 2명꼴(42%)로 주식·암호화폐 투자만으로도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그림] 30대 연령층의 계층 인식 (%)



[그림] 30대 연령층의 근로소득/투자 인식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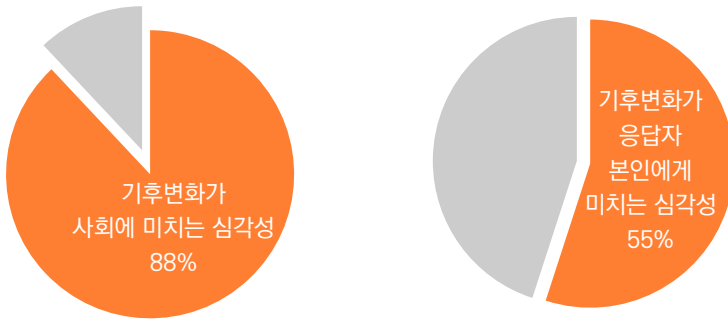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22 중산층의 삶과 금융실태조사', 2022.04.06. (만 30~59세 성인남녀 1140명, 온라인조사, 2022.02.22.~03.02)



## 우리국민 기후변화 관련, 자신보다 사회에 미치는 심각성 훨씬 크게 인식

- ▶ 지난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었다. 이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다양한 환경 관련 행사가 열렸고, 언론에서도 환경보호, 기후위기 관련 보도가 쏟아졌다. <넘버즈>에서도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았다.
- ▶ 한국환경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2021 국민환경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인 88%가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반면 본인에게 기후변화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는 55%만이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 ▶ 많은 국민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그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약해, 아직 실제 생활에서 자신이 직접 피해를 본다는 느낌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현재 시점에서 느끼는 기후변화의 심각성 ('심각하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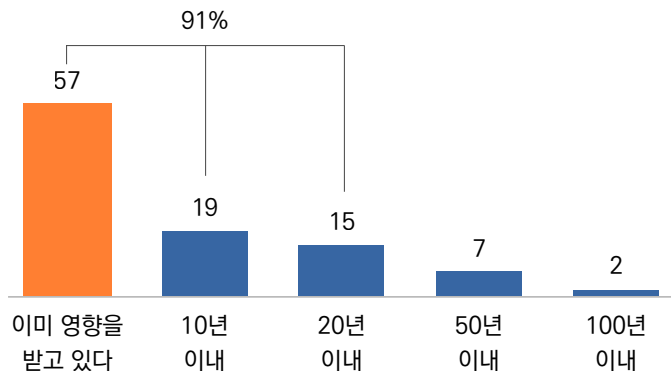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환경연구원(KEI),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2021 국민환경의식조사', 2021.12.31.(전국의 만 19세~69세 성인남녀, 총 5,050명, 온라인조사)  
 \*\*5점 척도 질문으로 심각하다(매우+약간), 심각하지 않다(전혀+별로) 비율임.

### ◎ 우리국민 91%, 20년 내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받을 것이다'

- ▶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 절반 이상(57%)이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10년 이내' 19%, '20년 이내' 15%, '50년 이내' 7% 순이었다.
- ▶ 우리 국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20년 이내의 가까운 미래에 직면할 문제임을 대다수(91%)가 인식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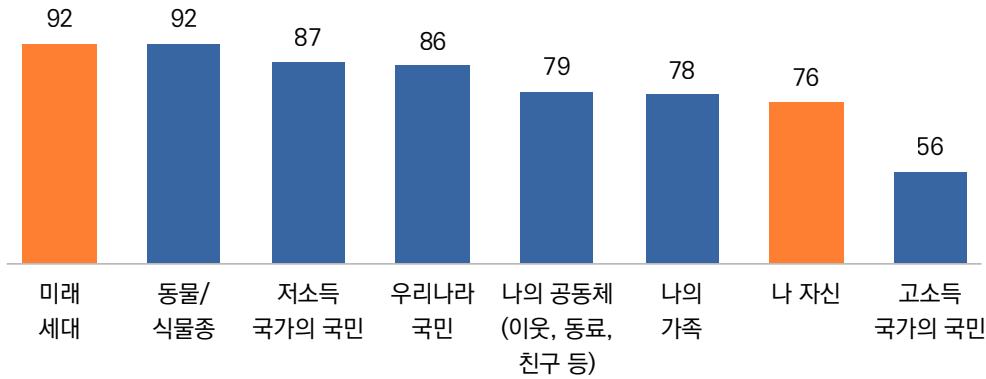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환경연구원,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2021 국민환경의식조사', 2021.12.31.(전국의 만 19세~69세 성인남녀, 총 5,050명, 온라인조사)

## ◎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 ‘미래 세대’ 92%!

- ▶ 대상별로 기후변화 피해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미래 세대’(92%)와 ‘동물/식물종’(92%)이 비슷하게 90%를 넘었고, 다음으로 ‘저소득 국가의 국민’ 87%, 우리나라 국민 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우리 국민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자기 자신(7위, 76%)보다는 먼 대상(미래 세대, 동물/식물종 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림] 기후 변화로 \_\_\_\_가(이) 피해를 받는다 (그렇다 비율, 8개 대상, %)



\*자료 출처 : 한국환경연구원(KEI),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2021 국민환경의식조사', 2021.12.31.(전국의 만 19세-69세 성인남녀, 총 5,050명, 온라인조사)

\*\*피해 받음(매우 받음+약간 받음) 비율임.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492호\(2022년 4월 3주\)](#)

- 대통령 당선인 현재 직무 평가, 검찰 수사권, 법무부장관 후보 적합 여부, 거리두기 해제

[전국지표조사\(4개 주요 조사기관\) 리포트 \(2022년 4월 4주\)](#)

- 차기정부 국정운영 기대감, 윤석열 당선인 인식 변화

◎ 사회 일반

["결혼한다고? 너 살만하구나"...고소득 신혼부부 비중만 확 늘었다](#)

매일경제\_2022.04.20.

["한국사회, 여성에 불평등하다"...20대女 73% vs 20대男 29%](#)

연합뉴스\_2022.04.19.

[비쌀수록 잘 팔린다?...철마다 가격 올린 명품업체들 '떼돈'](#)

연합뉴스\_2022.04.21.

[임금 안 깎고 4일간 5일치 업무 '탄력적 주4일제'에 공감](#)

중앙일보\_2021.04.23.

[코로나사태 속 메신저피싱 급증...피해액 991억원, 165% ↑](#)

연합뉴스\_2022.04.19.

[지난해 국민 3명 중 1명 걷기여행 참여...제주올레길 1위](#)

연합뉴스\_2022.04.19.

['이런 배우자'랑 살면 뇌 건강해집니다](#)

헬스조선\_2022.04.23.

[출근길에 든 생각, '아 퇴근하고 싶다'](#)

조선일보\_2022.04.14.

◎ 청소년 / 청년

["돈 더 준다고요?" 2030, 대기업 다녀도 미련 없이 직장 옮긴다](#)

조선일보\_2022.04.21.

[대출 위험 30대에 집중 "30대 빚, 소득의 3배 육박"](#)

조선일보\_2022.04.19.

[코로나 이후 청소년 게임 의존 심화...과몰입 위험군 2배로 증가](#)

연합뉴스\_2022.04.18.

['알바경험' 서울 중고교생 3년새 반토막...31%는 "근로계약 안써"](#)

연합뉴스\_2022.04.20.

["2030 골퍼 덕분에 매출 대박" 환호...골프업체가 젊어졌다](#)

한국경제\_2022.04.24.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영등위 “작년 청소년 영상물 시청 하루 평균 5시간”](#)

연합뉴스\_2022.04.18.

[20대·학생·일용직 식생활 만족도 낮아…"코로나로 악화"](#)

연합뉴스\_2022.04.22.

◎ **경제 / 국제**

[스마트하게 일하는 회사들의 6가지 전략](#)

대한상공회의소\_2021.02.15.

[우크라 직격탄 맞은 韓 물가…올해전망치, 아시아 선진국 중 2위](#)

연합뉴스\_2022.04.24.

[커지는 무역적자…25년 만에 ‘쌍둥이 적자’ 경보음](#)

중앙일보\_2022.04.22.

["우린 끄떡없다" 믿었던 日, 최악 위기 전망에 '쇼크'](#)

한국경제\_2022.04.20.

◎ **기독교 / 종교**

[55% 목회자들은 과중한 스케줄로 과로하고 있다 느껴](#)

크리스찬타임스\_2022.04.22.

[목회자들 선교는 명령, 교인들 확신 못해](#)

크리스찬타임스\_2022.04.22.

[불타 죽고 독살당하고 옥에 갇히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아프리카 핍박에도 기독교인 꾸준히 늘어](#)

국민일보\_2022.04.20.

◎ **기획기사 : [4,500조 부채 부메랑이 온다] 동아일보**

[1. 불안에 떠는 영끌족](#) \_2022.04.04.

[2. 벼랑 끝 자영업자](#) \_2022.04.05.

[3. ‘원자재-이자’ 이중고 겪는 中企](#) \_2022.04.07.

[4. 제도권 금융서 밀려나는 취약계층](#) \_2022.04.08.

[5. 대출 규제 완화 딜레마](#) \_2022.04.13.

###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학교,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올림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학술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사단법인 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 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앤컬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볕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삼신테크, (주)셀파 C&C,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성,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승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요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림, 전지영, 정기목,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mailto: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mailto: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mailto: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 |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횡발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